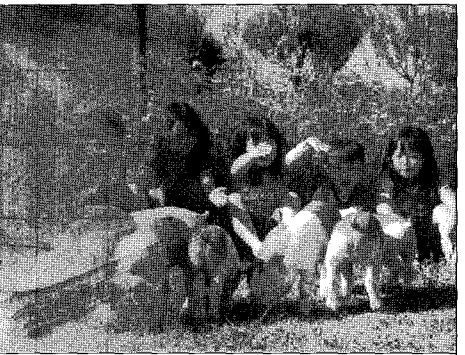


협회소식

KOREA SWINE ASSOCIATION NEWS



2005 전국양돈지도자 연수회 대성황

-친환경 양돈산업에 앞장설 것 등 결의
-우리 협회 지부(회)장, 자조금 대의원, 양돈조합장 등 전국양돈지도자 400여명 참석



WTO, DDA와 FTA 등 시장 개방 여건하에서 우리 양돈산업을 굳건히 기키고, 21세기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양돈지도자들의 역할을 다짐하는 '2005년 전국 양돈지도자 연수회'가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충남 아산소재 도고 글로리콘도에서 우리 협회 최영열 회장 및 임원, 전국 지부(회)장, 양돈자조금 관리위원 및 대의원, 양돈조합 조합장 및 조합 임원 등 전국의 양돈지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

우리 협회가 양돈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향후 양돈산업의 생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한 "2005

전국양돈지도자 연수회"에서, 참석한 전국의 양돈지도자들은 국내 양돈산업의 나아갈 방향과 당면한 현안문제 등을 진지하게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시종일관 양돈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의견을 모았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109page 참조>

양돈업 등록제 조기 참여 적극 홍보키로

-5월 27일 제2차 정기이사회서 결정
-가평지부·여수·신안지회 설립, 순천지부 승격 승인



우리 협회는 5월 27일(금) 오후 3시 농협 안성교육원에서 최영열 회장 등 18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제2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가평지부(지부장 신성균), 여수지회(지회장 방원빈), 신안지회(지회장 양진석) 설립을 승인하고, 순천지회를 순천지부(지부장 유상모)로 승격시켰다.

이와 함께 협회 자문 회계사로 김태용 공인회계사(만40세)를 위촉했으며, 최근 협회 주요 활동사항 보고와 규정 개정(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최영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도개선위원회 등 최근 우리 협회가 주체가 되어 양돈산업을 이끌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해양배출 허용량 현행 수준 유지 요청 등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만큼 이사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며, "앞으로도 협회가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들은 김동성 전무로부터 축산환경대책·양돈방역대책·제도개선위원회 등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 사항, 2005년 상반기 '우리농업 희망찾기' 정책공모, 자조금 조사연구사업 발표회 개최, 1검정소 이전 계획 및 SEW 매각 추진, 신축산화관 건립, 양돈자조금 거출 및 사업 추진 상황 등 협회 주요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지부명칭 변경 및 설립(안) 2004년 회비 미납자 자격 상실(안) 2005년 추경 예산(안) 협회 자문회계사 위촉(안) 등의 안건을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편 이사들은 이용모 전 경남도협의회장을 이사로 선임하고, 이후 결산총회에서 승인받기로 결정했으며, 오는 6월 9일부터 10일간 개최되는 2005년 전국양돈지도자 연수회 행사에 대해 협의하고, 각 지역의 양돈지도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키로 했다.

이 외에도 돼지고기 유통감사원, 2005년 한국국제축산박람회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 협조키로 했으며, 축산박람회 기간중에는 각 도협의회별로 테마식당을 운영키로 하는 등의 의견들이 모아졌다. 또한 5월 하순경 53%에 머물고 있는 양돈업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농가들을 설득하는 등 독려키로 결정했다.

“방역 및 친환경축산 위해 반드시 등록해야”

-최영열 회장, 양돈업 등록제 참여 독려

축산업 등록 마감시한을 7개월여 남겨놓은 5월 말 현재 국내 양돈농가들의 축산업 등록률이 등록대상 9천4백45농가중 3천3백47농가가 등록, 등록률 51%에 머물고 있어 축산업 등록제에 대한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등록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영열 회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양돈농가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축산업 등록제가 가축방역 및 친환경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제도가 될 것인 만큼 전국 모든 양돈농가들이 축산

업 등록제 참여를 통해 소비자를 위하고 이를 통해 양돈산업 전체가 지속 발전하게 되는 계기로 삼자”며 축산업 등록제 참여를 독려했다.

“농지법 개선 위한 전방위대책 마련키로”

-제2차 제도개선위원회 개최



우리 협회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병모)는 지난 6월 8일 2차 회의를 갖고 농업진흥지역내 축사설치가 가능토록 하는 농지법 개선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마련에 나서

“우리 돼지고기는 우리가 지킨다”

-양돈인 등 돼지고기 유통감사원 100여명 교육

돼지고기 유통감사원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우리 협회는 지난 6월 15일 오전 11시 서울 성내동 소재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돼지고기 유통감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돼지고기 유통 감시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우리 협회 전국 임원·지부장 등으로 구성된 돼지고기 유통감사원 100여명은 이날 돼지고기 유통감시원증을 교부 받고, 국립농



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출장소 유연국 팀장으로부터 돼지고기 유통감시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실무 교육을 받았다.

최영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협회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돼지고기 유통감시 활동에 우

리 양돈산업은 우리가 지킨다는 자세로 철저히 임해 돼지고기 유통감시원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돼지고기 유통감시 활동은 품관원의 농산물 명예감시원증을 발급 받은 9개 우리 협회 도협의회장을 포함해 4명이 지역 돼지고기 판매점의 부정 유통을 감시하게 된다. 앞으로 돼지고기 유통감시원이 본격 활동을 개시함에 따라 돼지고기 유통 투명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농지법 개선이 도시화 및 축사과밀 지역에서의 축사이전으로 경종농업과 연계한 친환경축산 기반 조성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법개정이 어려움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발의에 의한 공청회 개최를 통해 농지법 개정의 여론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반대정서의 효율적 해소를 위한 대책 및 실질적이고 조직적인 국회의원 설득 프로그램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제도개선위는 또 농업세제 개선을 통해 국세로 돼 있는 축산업 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 작물재배업과 마찬가지로 오는 2008년까지 과세 중단토록 하되 위탁사육수수료 부가세 면제 및 동물약품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토록 추진키로 했다.

「양돈선진국의 실태와 경쟁력 비교조사」 발표회 개최

-국내 양돈산업 생산유발액 9조원, 취업유발인원 7만5천여명



2004년 양돈자조활동자금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양돈선진국

의 실태와 경쟁력 비교조사」결과가 5월 24일 최종 발표됐다.

우리 협회는 지난 5월 24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양돈업계, 학계, 연구기관, 언론사, 양돈농가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돈선진국의 실태와 경쟁력 비교조사」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자세한 발표내용은 본지 144page 참조〉

DDA협상, 수입국 입장 충분히 반영 요구

-최영열 회장 등 농민대표단 스위스 제네바 방문

최영열 우리 협회장(농단협·축단협 부회장) 등 농민대표단은 지난 1일~5일 DDA농업협상에 대응하고, 우리 농업현실을 세계 각국 대표와 WTO 사무국에 알리는 등 적극적인 민간외교를 펼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지난 6월 2일 농민대표단은 WTO 농업위원회 팀그룹소 의장과 면담을 갖고, 이어 데일리 미국대사, 플로레스 WTO 사무차장, 아르헨티나 대사 등과 면담을 가졌다. 대표단은 면담을 통해 한국 농업의 현실을 설명하고, DDA농업협상에 한국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수출국 주도로 이뤄지는 농업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산물 수입국들의 입장이 협상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각국이 고유의 음식문화와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영열 회장, 서호주 양돈산업 시찰

우리 협회 최영열 회장과 김동환·윤주성 부회장, 김성곤 경북도협 의회장 등 임·직원과 월계농장 김규한 사장 등 업계·학계 종사자 등 25명은 서호주정부 초청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23일까지 8박9일간의 기간 동안 서호주를 방문, 양돈산업에 대한 시찰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시찰기간동안 방문단 일행은 서호주 농무장관을 예방해 서호주 양돈산업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듣고, 사료공장, 수의대학, 사료공장, 양돈장, 도축장, 지역발전위원회 등 서호주 양돈산업과 관련한 시찰을 통해 서호주 양돈산업 현황을 살폈다. 또한 서호주 검역정책 및 농림부 연구분야와 농업 현황, 서호주 투자를 위한 투자 이민정책, 서호주 농장시스템 및 비육돈 위탁사업, 종돈개량 세미나 참여 등 서호주 양돈산업과 관련한 폭넓은 정보를 수집하고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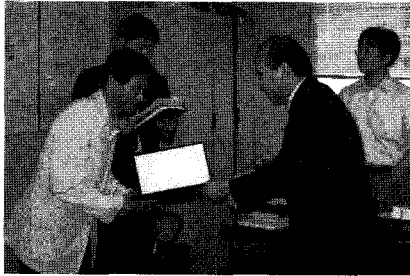
농진청, '약취저감 방안' 연구기로

-우리 협회 제안과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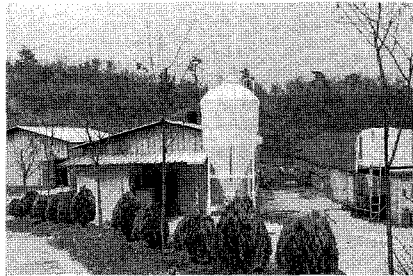
농촌진흥청은 농민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파악해 이를 실용화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등 농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005년도 농업인단체 개발요구 제안과제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말 우리 협

공주지부 장장길 총무 환경부 장관상 수상



▲공주지부 장장길 총무(좌측)가 지난 6월 5일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장장길 총무가 운영하고 있는 미성농장 전경

깨끗한 돈사 내외부 환경을 가꾸고 청결한 환경에서 돼지를 키웠던 양돈농가가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충남 공주에서 3,000두 규모의 미성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협회 공주지부 장장길 총무가 그 주인공. 장 총무는 평소 공주지부 총무를 맡아오면서 각

종 정부시책과 친환경 양돈업에 앞장 서 왔으며, 주위 양돈농가들에게 청결하고 친환경 양돈장을 가꾸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또한 양돈장 외부에 벚꽃, 철쭉, 소나무 등을 심어 주위 양돈인 들의 모범이 되어 왔다. 환경부는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을 기려 지난 6월 5일 장관상을 수여했다.

회는 “가축사육 농가의 악취저감 방안” 제안과제를 제출한바 있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농장현실에 맞는 악취저감 기술개발이 친환경축산과 연계, 사육두수 및 사육밀도와 연관해 수행이 필요하다고 검토하고 우리 협회의 제안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협회 자문회계사 김태용씨 위촉



김태용 자문회계사

우리 협회는 지난 5월 27일 제2차 이사회의를 개최하고 김태용 공인회계사(만40세)를 협회 자문 회계사로 위촉했다.

김태용 회계사는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농림부장관상 2회를 수상한바 있으며, 2004년 농기업 발전을 위한 세제 제안을 통해 재

정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한바 있다. 또한 농업금융개혁위원회 위원,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에 의한 농업경영체 경영평가 위원 등으로 활동 및 축산업 세제 제안과 관련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김태용 회계사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미래회계법인 농업사업팀 파트너로 재직하고 있다.

2005 농민단체 체육대회 성료



전국 32개 농민단체가 함께 어우러진 “2005 농민단체 체육대회”

가 지난 5월 25일 경기도 안양시 소재 농업기반공사 대운동장에서 열려 성황리에 종료됐다.

농업·농촌의 발전과 화합을 도모키 위해 실시된 이번 행사에는 우리 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각 축종별 단체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의 농민단체, 그리고 생활개선훈양회, WTO국민연대 등 전국 32개 유관단체를 대표한 임직원 170여명이 참가했다.

도협의회 및 지부소식

경남도협의회장 이·취임식, 새 도약 다짐

우리 협회 경남도협의회는 지난 5월 25일 마산시 소재 아리랑 호텔에서 열린 제 7, 8대 경남도협의

대. 8대 도협의회장 취임식



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하태식 신임회장 취임을 축하하고, 새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 협회 최영열 회장과 최상백 전 회장, 경상남도 정희식 축산과장 등 2백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고, 하태식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발표하면서 “경남 양돈인이 전국의 으뜸이 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웅모 전임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하태식 신임회장을 도와 양돈산업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협, 박람회 행사에 적극 동참키로

경기도협의회(회장 김건호)는 6월 2일 이천시 신둔면 소재 한국양돈연수원에서 경기도협의회를 열고 오는 8월말 개최되는 2005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또한 도협의회는 분뇨와 관련 해양 배출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이 합동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히고, 각 지부에서 유예기간 확보와 대안 없는 정책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등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경종농업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한마당을 열어 소비자와 만

남의 장을 여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성지부, “양돈팀 한마음 응원”



안성지부(지부장 안규광)는 6월 11일(토) 농협 안성연수원에서 개최된 제2회 안성 축산인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양돈팀원으로 대회에 참여하고 열띤 응원을 펼쳤다.

이날 체육대회는 양돈인 150명 등 총 700명이 참석하고, 양돈팀, 한우팀, 낙농팀, 육우팀, 연합팀 5개팀으로 구성해 한마음 체육대회를 펼쳤으며, 양돈팀은 배구 1위, 줄다리기 2위, 릴레이 1위 등 종합 1위를 달성해 양돈인의 단합을 돋보이게 했다. 한편 으뜸축산인과 우수축산인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양주지부, 춘계 आय회로 회원 단합 도모



양주지부(지부장 조윤상)는 지난 5월 17일(화) 조윤상 지부장 외 지부 회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

화도 전등사와 보문사를 방문하는 등 춘계 आय회를 개최하고 회원들 간 화합을 도모했다. 양주지부는 이번 आय회가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잠시나마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부를 중심으로 더욱 단합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영천지부, 여름철 사양관리 충실히

영천지부(지부장 권춘구)는 지난 달 23일(월)에 열린 월례회의에서 (주)애니멀 클리닉 조강모 수의사의 “여름철 사양관리” 세미나를 듣고, 하절기를 대비해 돈사 관리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종필 방역요원은 여러 질병으로 인해 돈열백신을 늦추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80~100 일령에 꼭 백신을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포지부, 혹서기 대비 사양관리 만전 다짐

김포지부(지부장 이응관)는 지난 26일(목) 김포시 통진읍 소재 대림부폐에서 관내 양돈농가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양돈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혹서기 사양관리 및 대책’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충남 홍성 신베트 신현덕 원장이 참석해 강의를 펼쳤으며, 여름철 사양관리와 더불어 향후 양돈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도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돈**